

오피니언

월/요/광/장

임내현



나는 지난달 28일 어머니가 거주하는 광주시 북구 운암2동에서 열린 불우이웃에 대한 위문품 전달식에 참석해 약간의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했다. 지난 1998년에 고형 광주에 가까운 순천의 검찰지청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부터 매년 추석 및 설날에 위문품 전달식에 참석하거나 위문금을 보내 동참해 왔다.

법무, 검찰의 기관장으로 근무할 때 각종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고아,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잔치 등 월 1회가량 불우이웃 돕기 활동을 했고 퇴임 후에는 내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세종의 짧은 변호사들과 틈틈이 용산의 무의탁노인 보호시설을 위문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 활동을 해 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움을 느꼈다. 특히 지난 달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의 체험담을 들은 데 이어 그가 나에게 준 '밭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란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동안 나름대로 자원봉사활동을 해 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의 헌신

적인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그와 같이 훌륭한 자원봉사운동가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호응하고 있는 것에 밝

범시민적 자원봉사 필요할 때다

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아마도 현재 수십만의 국민이 자원봉사운동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더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려면 적어도 수백만 명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구나 북구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약하다고 비판받는 미국에서조차 전체 성인인구의 절반이 넘는 8천 600만 명이 매주 2.5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원봉사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수출액, 국민총생산 등에서 세계 10위권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극심한 경쟁으로부터 낙오되어 실업자가 되는 등 양극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선천적, 후천적 장애로 인해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소위 불우이웃이 약 500만 명에 이르고 그 중 100만 명이 청소년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만일 이들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복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한다면 기업

과 개인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욕이 떨어지고 경제성장이 저하됨으로써 실업자가 증가될 것이다. 가장 좋은 사회복지대책은 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완전고용상태를 이루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발생할 낙오된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와 최근에 채택된 긴급복지지원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향후 경제 성장에 따라 복지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단순히 그때그때의 일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소모적 복지 아니라 그들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생산적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 지원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불우이웃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우이웃에게 모자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필요만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자원봉사운동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돈이 모여 경제적 부족을 메우고 나아가 함께 대화하고 놀이를 하며 청소년과 몸을 닦아 줌으로써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와 소외감을 씻어주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의 자원봉사운동 참여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보완되고 봉사자 자신이 사람을 베푸는 자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북핵문제’ 공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 이후 여섯 만에 강도 높은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비록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군사적 행동을 배제한 경제·외교적 조치로 그 수위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991년 북한의 유엔가입 이후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첫 대북 제재라는 점에서 북한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체제위기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결의안이 채택되자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만약 미국이 대북 압력을 가중시키면 이를 전정선으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물리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정권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의 든든한 버

림목 역할을 해주던 중국과 러시아마저 이번 제재에 참여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계속한다면 제재수위는 상황조절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라는 얘기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앞으로 북한의 고립은 심화되고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하고도 모자라 또다시 10여 년 전의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민족을 죄를 짓지 않고 나라와 인민이 모두 사는 길로 들어설 것인가. 이제 공은 북한 정권의 손으로 넘어갔다. 북한 위정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정부도 국제사회가 너무 강경하게 물아붙여 북한정권이 오히려 강도 높게 북한당국에 협상과 제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 김 건조장 면세유 혜택 제외 재고해야

올해부터 김 건조장에 대한 면세유 혜택이 중단되면서 전남지역 김 건조장이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고 한다. 전남의 김 건조장이 전국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어떤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김 건조장에 면세유 혜택이 없어진 것은 재정경제부가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 김 건조장을 기존의 수산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세수 확대와 과세의 형평성 등을 들어 농업이므로 면세유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 조치를 축소해는 정책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면세유 혜택에서 제외되면 원가상승 등 경영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9월 말 현재 전남지역 634개 김 건조장 가운데 122개 업소가 휴업했다고 하지 않은가. 업체들이 누적되는 적자에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김 건조장에 면세유 공급을 중단한 것은 건조장뿐만 아니라 김 양식어민에

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김 건조장이 문을 닫으면 양식어민들은 물김을 판매할 곳을 잃게 된다. 업계는 전남을 비롯 전국 피해액이 1천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김 건조장을 수산업에서 제조업으로 재분류한 것은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 할 수 있다. 김 건조장은 어민들의 주소득원인 김의 생산과 판매에 없어서는 안되는 시설이다. 쌀 건조장이 농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김 건조장에 대한 면세유 혜택 제외는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일부의 주장대로 김 건조장을 제조업이 아닌 수산서비스업으로 분류해 면세유 혜택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과 수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길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신건호. '감사'하면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여러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작년에 개봉된 강우석 감독의 영화 '공공의 적 2'의 주인공인 '검사 강철중'을 떠올릴 것이다. '공공의 적'을 잡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권총까지 사용하며 법인과 맞서는 검사의 모습. 이 때문에 지금도 가끔 '검사도 권총을 가지고 다니나요?' '조직폭력배와도 싸워 봤어요?' 라는 곤란한 질문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 속의 검사와 영화 '공공의 적 2'에서 나오는 검사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 검사 강철중과 공공의 적. 우선, 검사가 범인을 추적하고 몸싸움을 하며 권총을 사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검사는 경찰이 붙잡은 범인을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벌되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이기 때문이다. 만약 영화 속의 검사라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닌, 몸 좋은 무술유단자들이 검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검사가 잡는 사건들은 영화에서와 같은 '거대한 사회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범죄들'도 있으며 오히려 그런 범죄들이 훨씬 많다. 사건 중에는 만화책 1권을 훔쳤던가 이웃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한 번 때렸었다는 등의 단순 절도·폭행등의 사건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다 보니

기고 안병량.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지난해 농림생산업은 36조원으로 2004년보다 1조원 가량 감소했다. 이중 축산분야 생산액은 전년보다 8.6%나 증가한 12조원으로 농림업 전체에서 32.4%를 차지해 굳건한 1위를 지켰다. 식량작물은 26.8%, 채소 19.1%, 과실부문은 8.5%를 각각 차지했다. 이같은 통계자료는 국내 축산업 생산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농촌경제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쌀 등 식량작물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 앞으로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으로 축산업이 자리매김되었음을 확인 해준다. 축산분야 생산액은 2004년 이후 식량 작물 생산액을 앞지르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품목별 생산액 비교에서도 축산 주요품목인 돼지·한우·우유·닭·계란이 2위부터 6위까지 차지하고 있고, 1년 전인 2004년 18위를 차지했던 오리가 10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농림부의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축산업은 개방화 이후 20년 사이에 농업속의 작은 부업에서 이제는 농업의 근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농촌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당당하게 성장했다. 지난 94년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해 본격적인 개방시대를 맞은 축산은 생존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문제, 대내적으로는 축

無等鼓.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임동원씨는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린다. 그는 국민의 정부 통일정책의 입안자이자, 집행자였다. 그가 김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1998년 2월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때문이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중국 학자들이 새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을 단 16자로 요약했다. 바로 '선이후난(先易後難) 선경후정(先經後政) 선민후관(先民後官) 선공후덕(先供後得)'. 쉬운 것은 먼저 어렵게는 나중에, 경제분야에서 정치분야로, 민간 교류에서 정부 차원 교류로, 먼저 배풀고 나중에 되받는다는 뜻이다. 임씨는 햇볕정책을 한마디로 압축한 그들의 조어 능력에 감탄했다. 임씨는 이후 햇볕정책을 옹호하면서 이 말을 자주 인용했다. 잘 알다시피 햇볕정책은 이슬 우화에 서 유래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세찬 북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우화다. 창시자적인 김 전 대통령

'학교 찬조금 근절' 학부모들 의식전환 필요.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어 학부모 모임에 참석, 소풍·현장학습·운동회·체육대회 뒤 선생님 목욕비, 각종 식사대접 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한 학부모가 관계를 들고 나오며 반대표현한 대표·어머니회 임원·운영위원 등 직책에 맡는 예의를 갖추어 한다고 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 했다.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명분하에 이루어 지는 관계를 무시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비워 맞추고 관계를 맺고고 생색내는 역할을

시골인심 마저 각박해져 안타깝다. 아버지가 무안 집 인근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했다. 4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친 아버지에게 초등학교 제자들이 사 준 것이다. 제자들에게 미안해서일까. 음식점 주인이 자신의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일부 책임을 지겠다며 신발값 절반 정도를 보상해 줬지만 아버지는 누군가 잘못 신고 갔으려니 하고 잃어버린 지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음식점에 전화할 한다. 그 구두를 신고 간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하지만 시골 인심마저 이렇게 각박해졌을까하는 안타까움이 너무 나 크다. 차라리 누군가 잘못 신고 갔으면 좋겠다. ▲오새리·광주시 동구 서석동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이금숙·광주시 서구 농성동